

아케엠주보

연중 제 5 주일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4)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김대순 가브리엘 (+971 56 480 7672)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연중 제5주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이 사명에 따라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간절하게 청합니다.

• 제1독서

이사 58,7-10

• 제2독서

1코린 2,1-5

• 복음

마태 5,13-16

• 영성체송

시편 107(106),8-9

• 입당송 시편 95(94),6-7 참조

• 화답송 시편 112(111),4-5.6-7.8ㄱ과 9(㉔4ㄱ)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별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복음환호송 요한 8,1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알렐루야.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데 온 힘을 다하며,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통찰과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배려로 풀어 나가며 형제적 사랑을 키우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자이신 주님, 노인들을 굶어살피시어, 그들이 외로움과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으며, 공동체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에 강복하시어, 각 공동체가 속해 있는 본당의 다른 공동체들과도 친교를 나누며 신앙과 형제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환대를 실천하게 하소서.

오늘의 전례: 설

오늘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새해가 시작되는 이날에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미사에 참여합니다.

• 제1독서

민수 6,22-27

• 입당송 마태 28,20 참조

• 화답송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17ㄱ)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 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제2독서

야고 4,13-15

• 복음환호송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2,35-40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살피 주시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복음을 실천하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오래도록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 겨례를 살피 주시어, 새로이 밝은 이 해에 남과 북이 화해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3.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지켜 주시어, 이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겪으며 최선을 다한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일치의 주님, 중동 한인 공동체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 영성체송

히브 13,8

[UAE] '설' 위령 미사

▶ 두 바 이: 2월 8일 주일 13:30, 성 프란치스코 성당

▶ 아부다비: 2월 14일 토요일 12:00, 성 요셉 성당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고,
그대를 지켜주시길.

민수 6,24

시편 130(129)



◎ 제 - 영 혼이 주 님을 기다 - 리나 이다



○ 깊은-구렁 속 에서- 주 님께 부르 짓사 오니



주님 - 제 소 리를 들어 - 주 - 소서



● 제가- 비는 소 리를 귀 여겨- 들으 소서



○ 주님 - 께서 죄 악을- 헤아 리신 다면



주님 - 감 당 할자 누구 - 이 - 리까



● 오 - 히려 용서 하 십이- 주 님께 있사와



더 - 더욱 당 신을 섬 기라 하시- 나- 이다



○ 제 - 영 혼이 주 님을- 기다 리 으며



당 - 신의 말 씀을 기다 - 리 나 이다



● 파수 -꾼이 새 벽을- 기다 리기 보다



제 - 영 혼이 주 님을 더 기다 - 리나 이다



○ 파수 -꾼이 새 벽을- 기다 리기 보다



이스-라 엘이 주 님을 더 기다 - 리나 이다



● 주님 - 께는 자 비가 - 있사 읍고



풍요 -로운 구 속이 있음 - 이 - 오니



○ 당신 - 께 서는 그 모든 - 죄악 에서



이스-라 엘을 구속 하시 - 리 - 이다



◎ 제 - 영 혼이 주 님을 기다 - 리나 이다

[아캠] 2025년 '아캠 재정 감사' 완료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선교 위원장님께서 2025년도 아캠 재정에 대한 감사를 마치셨으며,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으셨습니다. 감사 후 아래와 같이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회계 내용은 관구로 보고됩니다.

평화를 빕니다.

회계 감사 자료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관구 주요 인사 공문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위원장님께서 나오신 상태입니다. 다만, 몇 가지 이유로 3월 초까지 인수인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캠에 대한 관심과 감사에 대한 인수인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강희옥 파트리시오 올림

[아부다비] 세례 · 견진 성사

- ▶ 일 시 : 2 월 7 일 (토), 12 시
- ▶ 장 소 : 성 요셉 주교좌 성당
- ▶ 대 상 자 : 박현수 켄마



※ 복되고 뜻깊은 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도 받은 소중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바이] 설 위령 미사



- ▶ 일 시 : 2 월 8 일 (주일), 13:30
- ▶ 장 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 공동체에서는 차례상, 위령 명단, 연미사 예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 미사 중 연도(시편 129편) 및 가족 분향이 있습니다.

[교종 레오 14세] 2월 기도 지향

2월: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아, 결코 힘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6 아캠 사목 표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시간을 내어 기회를 만들어 서로 자주 모여 친교를 이루는 것이 작년에 아캠 공동체의 나아가는 바였다면, 올해에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그분의 '뜻'에 더 일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캠의 각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마태 18,19)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시편 34,16).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야고 5,16).

기도의 중요함을 막연히 알고 있지만 그저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도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아캠 온라인 기도 모임

- ▶ 기 간 : 1월 28일 (수) ~ 12월 30일 (수), 매주 수요일 21시 (UAE 기준)
- ▶ 참 석 대 상 : 아캠 공동체 내의 모든 교우
- ▶ 기도 모임은 공동체별로 한 주씩 돌아가며 이끌어 가고, 아캠 공동체 및 각 공동체의 기도 지향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캠 전담 사제 김성인 미카엘 아미.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 세례 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오랫동안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슬픔의 끝에는 언제나 열려 있는 창이 있고

“선생님, 희망을 이야기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글은 가끔 너무 착해서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학생이 했을 때, 저는 좀 뜨끔했습니다. 학생이 정말로 하고픈 말은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절망보다 희망을, 슬픔보다 기쁨을, 비판보다 격려를,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견지하는 태도가 젊은이들에겐 가끔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감수성이 면도날처럼 예리한 학생들은 가끔 날 것의 절규를 내지르고 싶을 때가 있을 테니까요.

솔직한 소감을 말해주는 학생이 그래서 저는 고마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글이나 말은 어느 정도 상대적이어서 듣는 이를 생각해야 하거든. 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시간의 시험을 거치며 남는 글은 좀 다르게 쓰고 싶어. 그리고 착함은 얼핏 힘없어 보여도 결국에는 이기는 굳센 힘이 돼.”

그 이후 저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대해 더 곰곰 오래 머물러 생각하곤 합니다. 눈물보다는 웃음, 절망보다는 희망, 죽음보다는 삶, 더 바람직하다고들 말하는 삶의 태도들이 정말로 늘 답인가 질문하면서요.

큰 슬픔을 지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죽음이 있기에 삶이 삶다워질 수 있고, 절망이 있기에 희망이 있고, 눈물이 있기에 웃음이 있고,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가늠할 길 없는 슬픔에 더 보탬 말이 없으니 다만 기도한다는 말씀이나, 슬플 때는 빨리 벗어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라는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상실을 극복하려는 마음도 버리라고, 아버지를 여의는 일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당면해야 하는 슬픔이기에 그를 부정할 수 없다고, 분향으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에 앞서 그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보다 먼저 겪은 경험을 통해 건네주시는 위로의 말들 속에서 저 또한 깊이도 너비도 모를 이 별리의 터널을 잘 지나고 있습니다.

폴 엘뤼아르의 시 <그리고 미소를>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슬픔의 끝에는 언제나 열려 있는 창이 있고.” 슬픔을 나누는 일은 곡진한 감정의 골을 함께 지나는 일, 그래서 슬픔의 끝을 맞잡은 이들은 결국 열린 창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슬픔의 끝은 그러므로 다른 세계, 다른 존재를 이해하는 또 다른 열림으로 이어진다는 것, 열린 그 창에 불이 하나씩 켜질 때 우리는 더 깊은 연대와 공감을 나누는 존재들이 된다는 이야기.

“선생님, 저는 아직 그 슬픔을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죽음이라는 사건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지나야 하는 마지막 시험인 이상, 그 시험을 몸소 지나는 일도 그걸 지켜보는 일도 쉽지 않음을 희미하게 알 것 같아요. 그러니 더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셔도 됩니다.”

어린 학생이 건네는 조심스러운 위로를 통해서도 슬픔이 열어주는 불 켜진 창을 마주하네요. 그렇게 저는 또 다시 말에 기대어 함께 나누는 삶 안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힘으로 이 혹독한 시간을 지나오셨겠지요. 연약한 인간은 이로써 더 단단해지고, 관대하고 너른 인간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게 삶이겠지요.

글: 정은귀 스테파니아(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가톨릭 신문 발췌, 편집>

2026년 1월 아캠 회계보고

(단위: AED/소수점 버림)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내 용		금 액	비 고	내 용	금 액		비 고
아캠 기금	전월 이월금		19,581	(2025년 12월 이월금)	성무활동비	2,000	(아캠 전담 사제: 1월)		
	후원금	단체	2,000		감사	190	(아캠 전 회장 감사패 제작)		
		개인	1,000		구매	92	(감사패 항공 배송비)		
	납입금	아부다비	1,200		가난 기금	390	(1월 아캠기금 5% 적립)		
		두바이	3,600						
		루와이스/바라카							
		카타르							
	기타 수입금 (이자 및 기타)								
	27,381				2,672				24,708
	가난 기금	전월 이월금		17,201	(2025년 12월 이월금)				
모금액		단체	1,390						
		개인	1,000						
19,591				0			19,591		
수입 합계				46,972	지출 합계			2,672	44,299

< 아캠 후원금 상세 내역 >

개인: (1) 박효진 세실리아 (2) 김영글 아기 예수의 데레사(가난기금) 단체: (1) 두바이 공동체(아캠기금 /가난기금)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banking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채팅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